

“핵 동결시 北과 대화 가능…사드, 美·中 만족할 방안 모색”

한미FTA 양국간 이익의 균형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

양국 동맹관계 더 튼튼히 하고 북핵 폐기 방안 찾겠다

전용기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교역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행 전용기 기내 기자회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언급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도 크게 늘었고, 그를 통해 미국인 고용도 많이 늘었다는 점을 납득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신뢰와 연대, 우의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 정상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문답.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동안 참모를 했지만 순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감은.

▲첫 해와 순방이와 감회가 깊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방미다. 인수위 시기가 없었고 가장 정부가 다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서두름 느낌이 있지 않지만 정상외교 공백이 컸기에 하루빨리 회복할 필요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첫 통화 시 적극적으로 초청해 주셨다. 어차피 우리도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미도는 한미일간 별도 회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하는 게 의미 있다.

성공하고 돌아가겠다. 양국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지금 우리 겪는 북한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공조방안을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 양 정상 간 신뢰·연대·우의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5년 임기를 해야 하는 관례로 우리가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부터 아주 느낌이 좋았고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서로 잘 통하는 관계일 것 같다는 느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 준비는 많이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악수하느냐는 것을 세계와 한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않겠나. 정상 간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악수 장면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복핵 ‘동결→폐기’라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는데, 과거처럼 북한이 동결을 약속했다가 번복할 경우 대응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원샷'으로 이뤄지

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화의 조건은 최소한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해야지 그 이후 본격적인 회고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중간에 여러 이행과정을 거칠 수 있고, 각 이행과정은 하나하나 완벽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검증이 확실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북한이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상응해서 북한에 대한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합의의 파기하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국제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명분을 세우주게 되는 것이다.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하게 할 방안이 있다.

▲언론에서 답을 달라.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그런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대한민국 언론에서 그런 방안 제시를 못 봤다.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정상회담부터 모색이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있는데 한미 무역 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 우리는 FTA가 제조업·자동차 분야는 도움이 되지만 농업 분야는 손해를 입고 있다. 미국은 거꾸로다. 양국 간 균형을 맞추는 게 FTA 협상이다.

저는 참여정부 때 타결한 FTA와 이후 수정을 통해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미 FTA가 양국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 그간 전 세계 교역량이 12% 줄었지만 한미 간 교역액은 6~7% 늘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었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 늘었다. 서로 도움을 받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전히 한국이 많은 흑자라는 생각으로 본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보는 적자보다 많지 않다. 상품 교역에서는 우리가 흑자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가 적자라서 적자 폭은 많이 준다. 그나마 올해는 더 줄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도 크게 늘었고 그로 인해 미국인 고용도 많이 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킨다면 올바른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미 FTA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협의할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8일(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관티코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진호 용사들과 흥남철수 없었다면 오늘의 지도 없었을 것”

첫 일정 장진호 기념비 헌화

“저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8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첫 공식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관티코의 국립 해병대 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뒤 기념사에서 "한미동맹은 전쟁의 화환 속에서 피로 맺어졌다. 몇 명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초 제막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우리 대통령이 찾은 것은 처음이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미 제1해병사단이
중국군 7개 사단에 포위되어 선결 위기
에 2주 만에 극적으로 철수에 성공한 전투
로, 미 전쟁사에서 '역사상 가장 고전했던
전투'로 기록돼 있다. 이는 흥남철수 작전
을 가능케 했고, 당시 1만4000명의 피난민
을 태우고 남쪽으로 향한 메러디스 빅토리
호에는 문 대통령도 부모도 타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67년 전 미 해병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다”며 “10만 여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철수 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고, 빅토리아호에 오른 피난민 중에 제 부모님도 계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년 후 저는 빅토리호가 내려준 거제도에서 태어났다. 장진호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은 존경과 감사라는 말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며 “제 가족사와 개인사를 넘어서 그 급박한 순간에 군인들만 철수

하지 않고 그 많은 피난민을 북한에서 탈출시켜준 미군의 인류애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67년 전 자유와 인권
을 향한 빅토리호의 항해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며, 저 또한 기꺼이 그 길에 동참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굳게 손
잡고 가겠다.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에
빠른 폐기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해병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 참배 모습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연합뉴스

“북핵 해결 구상·의지 있다...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하세요”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향해 “우리 정부의 (북핵해결)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이날 저녁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기업인 2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나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구상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된 한반도는 경제 분야에서 아픈 부분”이라며 “안보 리스크는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출구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핵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람중심의 경제’라고 소개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불공정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개선 하라는 것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

라며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한국경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
라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일자리”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양국 정부가 이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쭉~우~욱~~~~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NAVER | 조이투어 | 검색 |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박+항공 7/11 7/18 ※선착순 한정 특가

3일 북큐슈 298,000원 부터

4일 북큐슈 · 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7/21 7/28

북큐슈 3일 549,000원 부터

큐슈 · 야마구치 3일 699,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북큐슈 4일 649,000원 부터 8/1 8/5 8/8

큐슈 · 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8/20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부터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기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W30,000/인)

다낭 무안출발

베트남항공

여름 휴가기간(3박5일) 단, 4회!

7/30(일), 8/3(목), 8/7(월), 8/11(금)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999,000원 부터
(둘째날 오전 자유시간)

◆포함사항: 무안 ↔ 다낭 왕복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입장료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내 생수

◆불포함사항: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생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매너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노담 노음신

다낭 · 후에 · 호이안 1,299,000원 부터

◆포함사항: 무안 ↔ 다낭 왕복 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입장료의 관광지 입장료, 전선인 2인 2일, 야구나비, 비자한국입국권(비자불가), 호이안 야경시투어(비틀, 투블링투어, 차량 내 생수, 가이드&기사 경비)

◆불포함사항: 현지 경비, 매너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조건 1인 기준, 여행지여행 1인(해외여행: 1인, 국내여행: 5인) 기준, 관광진흥법제정(1인),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조건 1인 기준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생인, 만 12세 미만)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